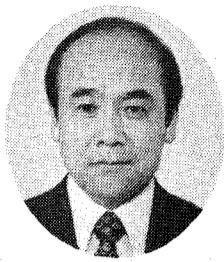


- … 일반적으로 加齢에 따른 신체조건의 변화는 心肺機能이…◆
- … 가장 뚜렷하게 감소해서 70세가 되면 20대 젊은 사람에…◆
- … 비해서 50~60% 정도의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그중에서…◆
- … 도 뚜렷한 변화는 폐와 호흡근육의 단련성과 수축력의 감…◆
- … 소로 인해서 폐장의 환기장애, 순환장애를 초래하므로 특…◆
- … 별한 병이 없어도 老人이 되면 저산소혈증이 생겨 숨이…◆
- … 차고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마련되어 있다. …◆



金建烈

<서울醫大>
內科學敎실

통계상 사람의 肺臟은 연령 증가에 따라 1년에 20ml 전후의 폐활량의 감소를 가진다고 조사되어 있고 폐활량의 감소는 폐장기능의 감소뿐만 아니라 心臟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조기 사망의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도 노인폐는 각종 폐장자체방어기능과 면역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여 염증 성폐질환이나 암성폐질환에 젊은 사람에서 보다 잘 이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이를 먹으면 病의 종류도 많아진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을 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옆나라 日本에서 조사된 65세이상 고령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폐질환을 65세이하군과 비교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폐암,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이 노년층 폐질환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65세이하 若年者群에서는 기관지 천식, 폐암, 만성기관지염, 간질성폐렴 등이 중도질환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에서는 加齢에 따른 동맥혈산소분압도 비례해서 감소하므로 호흡부전증으로 이행이 용이하게 되어 고령자에서는 호흡기질환이 국소적으로 적은 규모의 폐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쉽게 호흡부

<表> 老年者 및 若年者肺疾患의 비교

발생순위	老年群 (65세이상)	若年群 (65세이하)
1	肺癌 (23%)	기관지천식 (14.9%)
2	肺氣腫 (14.9%)	肺癌 (13.2%)
3	만성기관지염 (10.3%)	만성기관지염 (7.6%)
4	肺炎 (10.1%)	간질성肺炎 (6.3%)

한다는 것이 재삼 강조된다.

④ 1稍時肺活量

-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
- 연령증가에 따른 폐기능변화의 중요한 것은 동맥혈산소분압의 감소와 Closing Volume의 증가를 들수 있고 동맥혈산
- ⑤ 低酸素血症
- ⑥ 心電圖上右心이상
- ⑦ 高CO₂血症
- ⑧ 기초질환증상부터 호흡不全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

호흡기疾患증세보일때 즉각적인 治療실시필요

전을 일으킬 수가 있어 젊은 사람의 경우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 일단 호흡부전에 빠진 경우도 생존율이 若年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 회복률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폐 암

폐암은 현대개발국가 국민의 평균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종과 함께 40~50대 이상인 구에서 급속히 증가, 발견되는 병으로서 조기진단이 어렵다는

소분압저하의 기전으로는 폐조직탄성수축력의 감소, 폐활산기능의 감소, 그에 따른 肺換氣 /灌流비율의 저하등이 꼽힌다. 따라서 65세 전후가 되면 좌위에서 기능적잔기량이 Closing Volume보다 적어지는 폐기능장애를 유지하게 되어 항상 숨이 차다는 자각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우리주변에 얼마나 많은 폐기종 환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질병역학조사가 안되어 있어 정확한 숫자는 인용하지 못하나 선진개발국가의 경우는 60대인구

⑨ 전신쇠약자

⑩ 高齡者

폐 혈

노인층에서의 폐암은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대수롭지 않게 걸린 폐암으로 호흡不全과 死亡으로의 시작이 적을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노인에서는 수면중 肺換氣기능의 감소 및 기침(干咳) 능력이 뚜렷이 떨어져 咳下性肺炎을 일으키는 경

흡연과污染이 肺氣腫의 2대위험因子

原因규명 통한 정확한 抗菌劑 선택을

객담檢診사업強化·적극적禁煙운동전개해야

에서 일상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밀을 만한癌標識子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 암이 조기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폐암환자가 조기수술요법이나 항암요법의 효과를 못 보고 있어 폐암조기발견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취급한 폐암환자중 소세포 폐암의 67.5%가 전신기 (Extensive disease)를 보였고 비소세포폐암의 77%에서 제3기를 보이고 있어 얼마나 늦은 시기에 폐암이 발견, 진단하고 있나를 나타내주고 있다. 폐암치료의 첨경은 조기진단만이 해결책이므로 주기적인 검진, 객담검사를 통해서 신체 관리를 계획리하지 말것과 흡연,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등 폐암위험인자를 최대한도 피해야

의 60%, 70대인구의 70%라고 조사 발표되고 있어 加齢에 따른 생리적 기능저하와 더불어 주거환경오염, 흡연에 따른 폐기종 발생까지 한하면 상당한 비율의 노인이 폐기종을 가지고 있음을 특수폐기능검사를 통해서 조사해보면 검출할 수가 있다. 폐기종과 유사한 생리적 폐기능변화를 가져오는 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천식 등을 합쳐 만성폐색성폐질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상 세 가지 질환의 간별진단은 복잡한 폐기능검사와 병력과 임상진찰을 통해서 가능하고 많은 경우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병적과정이 겹하고 있기도 해서 이들의 간별진단과 확진이 치료와 예후결정에 중요정보가 되고 있다.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은 어디까지나 예방진료가 중요하며 일단 폐기종이 발생하면 퇴치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폐기종의 2대 위험인자를 최대한도 없애는데 많은 노력은 해야 한다.

호흡不全症의 危害인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가 거론 돼 있다.

- ① 低「알부민」血症
- ② Alkalosis
- ③ 肺活量의 감소

우가 많고, 특히 脳血管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년층에서 이런 현상이 잘 발생된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 폐炎에서보다 腸管內에 존재하는 「그람陰性菌」에 의한 肺內 감염이 많을 수 있어 노인에서의 폐炎원인균의 분포가 다를 수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노인 폐炎에서 제일 많은 폐炎원인균은 「그람」陽性菌으로서 폐炎球菌,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등이고 「그람」陰性桿菌이나, Enterobacter 등이 원인이 되는 수도 있다. 최근에는 一般人이나 患者연령이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각종질환에 여러 가지 抗菌, 抗癌化學療法, 면역 억제제 등 肺臟방어,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는 많은 약제가 투여되고 있어, 老人性肺炎에 해당하는 소견을 얻었을 때 그 원인균의 규명이 어려울 때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장 정확한 항균약제의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인균의 규명이 중요하다.

폐경색 폐색전증

노년층에서 문제가 적은 肺血管疾患으로서 肺塞栓症과 硬塞症이 있는데 이는 조기 진단

이 어렵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검사종류의 진단기준의 特異度 (Specificity) 가 떨어져 臨床家의 過診斷 및 低診斷의 어려움을 주는 폐질환이라 고 할수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자층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질병은 아니지만 症例數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언제나 이 병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간별진단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肺塞栓이 있으면 언제나 硬塞症으로 넘어가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반복되는 動脈血酸素分壓, LDH Transaminase 등의 변화가 肺炎 때보다는 뚜렷하여 간별진단에 도움이 돼 확진을 위해서는 Angiography, Digital Subtraction Angiogram IMAA Lung Scan 등이 도움이 된다.

폐결핵

肺結核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肺疾患으로서 특히 노인연령층에서 적지 않은 活動性肺結核患者가 발견되고 있어 가족감염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보건 문제로 남아있다. 결핵집단검진이나 지역보건소를 통한 결핵검진사업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여 간접진단 환자를 찾아내어 빨리 조기 치료를 할 수 있게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휴대용 혈당측정기는 환자 및 일반인이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이 없이 가정, 직장 및 여행 중 본인 스스로 혈당치를 측정하고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소형 혈당측정기입니다.

특징:

- 한방울의 혈액(血液)으로 측정(測定) 됩니다.
- 측정범위: 0~1,000mg/dl
물로 닦을 필요가 없음
- 날짜, 회수, 혈당치가 동시 100회까지 기억 재생됨
- 검사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한 휴대가 됩니다.
- 검사 시험지(Strip)을 냉장고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음.

제조원: DIC Kyoto DAIICHI

판매원: 정우양행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 24-14 (경북빌딩 101호)

전화: 276-0277

276-0278

※당뇨신문

“소망”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한당뇨협회”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 24-14

경북빌딩 101호

TEL: 265-9822